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8~6/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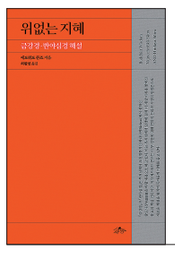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2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3	숲속 성자들-경전 속 동물마음 엿보기	이미령	담앤북스
4	서른즈음 꼭 읽어야 할 금강경	정운	민족사
5	천수경 수행의 길(선명상과 함께하는)	덕운	청류
6	법구경(불교경전15)	석지현	민족사
7	혁명가 붓다	법륜	정토
8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9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10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자현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불광출판사
3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5	법륜스님의 행복(큰활자본)	법륜	나무의마음
6	중관학특강 : 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10	보리일미(우관스님의 사찰음식)	우관	LAMP ON THE MOON

'완전한 지혜의 실천' 이끄는 해설서



위없는 지혜
금강경 · 반야심경 해설
에드워드 콘즈 지음 / 최필영 옮김
사유수 / 2만5000원

산스크리트어 〈금강경〉 〈반야심경〉 번역
세계적 불교학자의 해설과 역주 더해져
"경전 속 깨달음은 각자 참구로 드러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오 사라뿌뜨라여, 보살이 지혜의 완성에 줄곧 의존함으로써 사유장막 없이 머무는 것은 그의 얻지 못함 때문이니라. 사유장막이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뒤집힌 몽상을 극복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반야심경〉 '완전한 공(空)의 구체적 실현과 실천적 토대' 중에서

〈위없는 지혜〉는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에 정통한 세계적인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 1872~1935·사진)가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번역, 해설한 책이다. 콘즈가 두 경전의 현존하는 산스크리트어 필사본을 비교 연구해 영역(英譯)한 것을 최필영(조계종 국제포교사) 거사가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이 1957년 초판본이 출간된 지 70여 년 만에 국내에 새롭게 선보이게 된 것은 역자의 원력 덕분이다.(원저는 1990년 경서원에서 〈불교 지혜의 원천〉으로 출간된 바 있다) 그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대해 콘스는 연역적 논리를 통해, 서양의 방법론으로 해설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서양 학문의 방법론에 익숙한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경전을 해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번역을 맡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원서를 꼼꼼히 우리말로 옮기는 한편, 용어에 대한 자세한 풀이와 산스크리트어 발음, 필자와의 견해 차이 등을 역주에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에드워드 콘즈는 불교학자이자 수행자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등으로 기록된 불교 경전을 영어로 번역해 불교학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평생에 걸쳐 고전 불교 경전을 번역 해설하고 〈불교 명상〉, 〈불교연구 30년〉, 〈인도불교사상사〉 등을 저서를 펴냈다. 특히 〈위없는 지혜〉의 원전인 〈Buddhist Wisdom〉은 그가 천착한 반야바라밀다(Prajñāpāramitā) 전통의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 해설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콘즈는 머리말에서 "나 자신이 기여한 바는 경전 그 자체의 영역뿐만 아니라, 선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와 사고에 적합하도록 짜맞추기 위한 인내력"이라며 "경전이 주는 영적 깨달음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해설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영적 체험은 단지 끈질긴 참구(參究)에 의해서만 그 자신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한다. 경전의 내용을 곡해 없이 전달하고 해설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살핌으로써 독자들이 무엇을 참구해야 할지 알도록 돕는 것이 책의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책에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 원전 번역과 해설을 담고 부록으로 '돈황본의 권두 삽화와 해설', 용어 색인을 실었다. 마지막 장에는 두 경전의 전문만 따로 두어 수지 독송할 수 있도록 했다.

불전 문장으로 익히는 팔리어



팔리어 문법
쇼바 라니 다슈 지음 / 이자랑 옮김
씨아이알 / 2만8000원

체계적이고 정밀한 문법 지침서
황경환 이사장, 번역 전폭 지원

〈팔리어 문법: 불전의 용례로 배우기〉는 초기 불교 경전의 언어인 팔리어를 실제 불전 문장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실용 문법서다.

일본 오타니 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쇼바 라니 다슈 박사가 오랫동안 팔리어 문헌을 교육·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급 학습자부터 상급 연구자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문법 참고서로 집필했다. 특히 팔리 삼장과 주석서, 장외 문헌 등에서 엄선한 경전 문장에 대한 문법 설명과 연습문제를 제시해, 독자들이 문법 규칙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전 독해와 해석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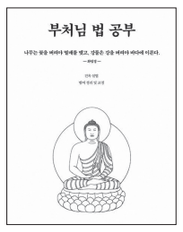
또 팔리어 문법의 전통적 기반인 5세기 〈캇차야나 문전〉을 근거로 문법 항목에 해당 규칙 번호를 병기하고, 원문과 해석문을 부록으로 수록해 상급 학습자의 깊이 있는 연구를 돕는다. 이와 함께 팔리어 전통 표기법, 운율, 불변화사 목록 등 일반 문법서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번역을 맡은 이자랑 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는 5월 24일 열린 출판기념법회에서 "전문 서적임에도 황경환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번역·출간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많은 이들이 팔리어에 관심을 갖고 부처님의 법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진옥 스님의 온라인 교리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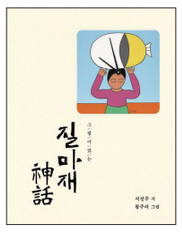


부처님 법 공부
진옥 스님 설법
범여 스님 정리
운주사
2만8000원

진옥 스님(티벳대장경역경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면 법회가 어려워지자 인터넷 화상으로 법문한 내용을 상좌 범여 스님이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부처님이 설한 초전법륜의 사성제(四聖諦)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無相) 법문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를 34번의 강의에 담았다.

스님의 말투를 그대로 살려 마치 직접 법문을 듣는 듯하다. 법문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옥 스님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책을 엮은 범여 스님은 현재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강원 릭람롭네르캉에서 반야부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출간 50년, 질마재를 추억하다



그림이 있는 질마재 신화
서정주 시
황주리 그림
은행나무
1만5000원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질마재 신화〉의 출간 50주년을 맞아 화가 황주리(동국대 석좌교수)의 그림을 더한 기념 시집이 출간됐다. 〈질마재 신화〉는 유년의 기억을 바탕으로 끝내 되찾고 돌아가야 할 고향, 그 원초적 삶을 생생해 그려낸 미당의 대표 시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국대 미당연구소(소장 전옥란)가 정본 시집에서 33편의 시를 고르고, 화가가 26개의 그림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황주리 작가는 "질마재 마을의 시간, 미당이 태어나 자란 그 시절 그 마을의 시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그림 여행을 한 것도 같다"며 "질마재는 정다우면서도 고독하기 그지없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챗봇이 수행을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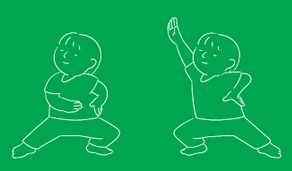
챗지피티와 스님의 대화
금강 스님 지음
아가니타사
1만8000원

챗지피티(ChatGPT)가 일상화되면서 불교 교리를 묻는 차원을 넘어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강 스님(경북 청도 아가니타사)은 "챗지피티와 물리 실험과 연산, 불교와 철학, 경전과 수행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챗지피티가 단순한 연산 기계가 아니라 근본 법칙을 바탕으로 각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된 스님은 대화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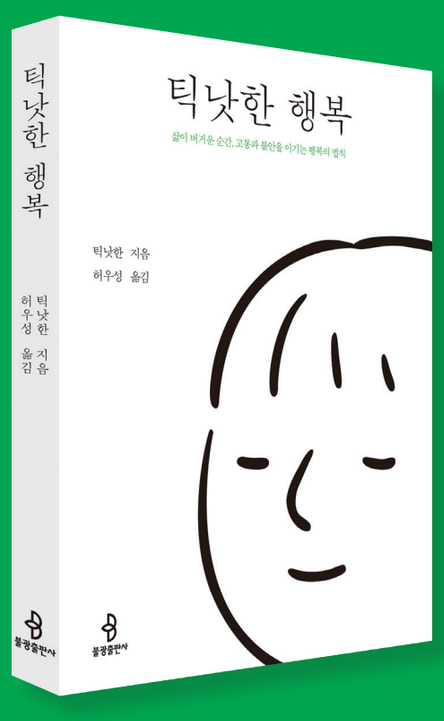
금강 스님은 "챗지피티와의 대화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집착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각성을 통해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틱낫한 스님이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의 법칙!

틱낫한 행복
삶이 버거운 순간, 고통과 불안을 이기는 행복의 법칙
틱낫한 지음 | 허우성 옮김 | 248쪽 | 18,000원



"우리는 행복은 미래에나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_본문 중에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불광이 전하는
틱낫한 스님의 지혜

"틱낫한 스님 가르침의 핵심 '상호존재'"
틱낫한 인터빙
허우성, 허주형 옮김
264쪽 | 18,000원

"〈유식오십송〉으로 쉽게 풀어낸 마음 안내서"
틱낫한 마음
윤서인 옮김
352쪽 | 21,000원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은 불교 교리서"
틱낫한 불교
권선아 옮김
384쪽 | 18,000원